

신기록 행진...광주·전남선수들, 전국체전 금빛 레이스

대회 3일...광주 82·전남 65개 메달
광주 양궁·수영 다이빙 등 금 16개
전남 댄스스포츠 3연패 등 금 14개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광주·전남 선수단이 금빛 활약을 펼치고 있다. 대회 3일째인 13일 오후 6시 현재 광주는 총 82개(금16, 은26, 동40)의 메달을 획득했다. 역대 손현호(국군체육부대)는 지난 11일 열린 남일부 81kg급 경기에서 용상 198kg, 합계 351kg을 들어올리며 각각 대회신기록으로 2관왕에 올랐다. 손현호는 지난해 대회에서도 2관왕(용상, 합계)에 올랐다.

광주 양궁도 금빛 명중을 이어가고 있다. 오예진(광주여대)은 12일 양궁 여자부 70m에서 대회타이 기록인 343점을 쏘며 정상에 올랐고, 13일 30m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하며 2관왕에 등극했다.

안산(광주은행)도 13일 여일부 30m에서 대회 타이인 359점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채진서(조선대)가 남대부 50m에서 금메달, 박주혁(광주체고)이 남자18세이하부 3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수영 다이빙에서는 김서경과 김지옥(이상 광주시체육회)이 12일 진행된 남일부 싱크로3m에서 374.07점으로 금메달을 합작했다.

앞서 핀수영에서는 지난 11일 양지원(광주시체육회)이 여일부 짝핀-100m 1위를 차지했다.

임선교(광주체고)는 레슬링 여자18세이하부 F76kg급에서 1위를 기록했다.

육상에서는 모일환(광주시청)이 13일 남일부 400m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대회에서 국군체육부대 소속으로 3관왕(400m·1600m계주·1600m혼성계주)을 했던 모일환은 지난 7월 제대후 광주시청으로 돌아왔다.

‘체조 유망주’ 문건영(광주체고)도 이날 남고부 개인종합 1위에 오르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남은 총 65개(금14, 은14, 동37)의 메달을 수확했다.

전남에 첫 금메달을 안긴 댄스스포츠 김민수-김나연(순천시댄스스포츠연맹)은 12일 대회 라틴3종목에서 체전 3연패를 달성했다.

이어 사격 배상희(상무)가 여일부 50m소총3자세에서 459.4점의 대회신기록으로 1위를 기록했다.

13일 전남 선수단은 수상스키웨이크보드, 합기도를 비롯해 양궁, 육상, 소프트테니스 등 다양한 종목에서 금맥 캐기에 성공했다.



13일 제105회 전국체전 양궁 여자일반부 30M 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안산(광주시체육회 제공)이 활시위를 당기고 있다.



13일 제105회 전국체전 양궁 여자대학부 30M 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오예진(광주시체육회 제공)이 활시위를 당기고 있다.



제105회 전국체전 육상 남자일반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심종섭(한국전력)이 결승선을 통과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이날 민병아(호야스토어)는 수상스키웨이크보드 여일부 슬라롬 개인전 1위에 올랐고, 최준희(일무체육관)는 사범경기로 치러진 합기도 남일부 미들급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전남 육상은 6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먼저 심종섭(한국전력)이 마라톤 남일부 결승선을 2시간 21분 56초에 통과하며 1위에 등극했다.

이어 해머던지기 박서진(목포시청), 포환던지기 문혜솔(전남체고), 여일부 400m 아야영(광양시청), 여고부 100m 이은빈(전남체고), 여고부 400m 최지선(전남체고)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양궁에서는 조한이(순천여고)가 여자18세이하부 3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소프트테니스 김명신-이시원(순천대)이 남대부 개인복식 1위를 기록했다.

이날 사범경기로 치러진 댄스스포츠 고등부 경기에서도 김예은-이재현(여수정보과학고)이 차차차와 룸바에서 각각 정상에 올랐다.

한편, 경남 일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국체전은 지난 11일 개막했다.

지역의 이름을 걸고 출전한 총 3172명의 광주·전남 선수단은 오는 17일까지 메달 경쟁을 이어간다.

/김해=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후배들이 우리 춤 통해 댄스스포츠 열정 키웠으면”

댄스스포츠 전국대회 첫 3연패 전남 김민수·김나연

전남 김민수-김나연(순천시댄스스포츠연맹)이 환상적인 호흡을 선보이며 댄스스포츠 사상 첫 전국체전 3연패를 달성했다.

김민수와 김나연은 지난 12일 경남 김해동부스포츠펀터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전 댄스스포츠 일반부 라틴3종목(삼바·차차차·룸바) 결승에서 합계 118.290점을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예선과 준결승에서도 각각 1위를 기록하며 결승에 진출한 이들은, 전국 최강의 호흡을 자랑하며 정상의 자리를 지켰다.

2022년 열린 제103회, 지난해 제104회 대회에 이어 올해까지 3년째 전국체전 정상을 거머쥔 김민수-김나연의 호흡은 단연 전국 최강이다.

김민수는 “일반부 라틴3종목에서 우리가 제일 오래 호흡을 맞춰왔다. 둘이 파트너 경력은 10년 정도 됐다. 그만큼 서로의 스타일을 잘 이해하고 신뢰한다. 대회장에 입장할 때도 ‘우리 잘 준비했으니까 서로만 믿고 가자’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10년 동안 파트너십을 이어온다는 것이 댄스스포츠 선수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나연이가 했기 때문이다. 내가 예민하고 디테일한 부분에 신경을 쓰면 나연이는 그 부담을 덜어주면서 더 시야를 넓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강조했다.

김나연은 파트너 김민수에 대해 “정확성과 명확성이 뛰어나다. 함께 길을 걸어가갈 수 있는 좋은 리더다. 춤을 추다 보면 몸의 감각이 달라질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체크해줘서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또 “파트너로서 함께하는 모든 순간에 배려가 느껴진다. 경기가 있을 때는 물론이고, 연습할 때도 내 컨디션을 먼저 살펴주고 이끌어준다”며 고마움을 드러냈다.

이제는 성적을 넘어 관객과 후배들에게 울림을 주는 선수가 되는 것이 이들의 목표다.

김민수는 “늘 더 좋은 모습과 준비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관객들



김나연(왼쪽)과 김민수가 12일 김해동부스포츠펀터에서 제105회전국체전 댄스스포츠 라틴3종 삼바 무대를 펼치고 있다.

이 선수 명단에서 내 이름을 볼 때 기대감을 느꼈으면 좋겠다. 마치 기다리던 영화가 개봉할 때처럼, 우리의 무대를 좋아해 주는 팬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나연은 “내 춤을 통해 후배들이나 꿈나무들이

댄스스포츠에 대한 열망을 느끼고 함께 성장하길 바란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꿈이 생긴다면 그건 나에게 가장 큰 영광이 될 것 같다.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글·사진=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임종훈·안재현, 아시아탁구선수권 32년 만의 금

남자 복식서 싱가포르에 3-0 승

임종훈과 안재현(이상 한국거래소)이 한국 탁구에 32년 만의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남자 복식 금메달을 안겼다.

임종훈-안재현 조는 13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2024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6일째 남자 복식 결승에서 싱가포르의 팡유엔코엔-아이직 픽 조를 3-0(11-6 11-16 11-6)으로 완파했다.

이로써 임종훈-안재현 조는 한국 선수로는 1992년 뉴델리 대회의 이철승-강희찬 조 이후 32년 만이자 역대 두 번째로 이 종목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한국은 이 종목에서 꾸준히 4강권 성적을 냈으나 금메달과는 인연이 많지 않았다.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신유빈(대한항공)과 함께 혼합복식 동메달을 따낸 임종훈은 국제대회에

강한 면모를 이어갔다.

임종훈-안재현 조는 16강에서는 카자흐스탄 조, 8강서 홍콩의 왕춘팅-발드윈 찬 조, 4강서 일본의 도가미 슌스케-시노즈카 히로토 조를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다.

‘최강’ 중국의 1번 시드 링가오위안-린스동 조가 말레이시아 조에 탈미를 잡혀 조기에 탈락하고 역시 우승 후보로 꼽히던 일본의 하리모토 도모카즈-마츠시마 소라 조도 싱가포르 조에 패하는 등 이번이 많았던 건 임종훈-안재현 조에 행운이었다.

임종훈-안재현 조는 결승에서 한 수 아래인 싱가포르 선수들을 설 새 없이 물리쳐 우승 기회를 닦아냈다.

이들은 지난해 임종훈이 정관장에서 한국거래소로 이적하면서 실업 무대에서 다시 한 조로 호흡을 맞췄고, 첫해부터 실업탁구 챔피언전 우승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 광주상설공연(10월)
 일시 : 2024-10-05(토) ~ 2024-10-31(목)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10.31(목) 오후 7시 기획공연
 (강하달림 시월 Bluse)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고정희 개인전 : 황혼의 찬란한 여정
 일시 : 2024-09-24(화) ~ 2024-10-27(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